

작은 유리 조각이 품은 거대한 세상

February, 2016 | 김수진 기자

*Art*  
담당 김수진 기자



작은 유리 조각이 품은 거대한 세상

**장 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Black Lotus)** 2015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물의 극장'에 새로운 작품이 들어섰다. 역사와 무용, 자연의 조화를 유기적 곡선에 담아낸 금빛 구슬 분수 '아름다운 춤(les Belles Danses)', 300년 만에 베르사유 궁전에 새 작품을 영구 설치한 첫 사례로, 18세기 정원의 기하학적인 배치와 조화를 이루며 호평을 받았다. 4년에 걸쳐 이 작품을 제작한 주역은 프랑스 출신의 현대미술 작가 장 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 1980년대 후반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사진과 조각, 설치 등 장르를 넘나들며 개인의 내면에 잠재한 아픔을 표현해왔다. 특히 양면성을 지닌 재료에 관심이 많아 초기에는 왁스와 유황 등을 사용하다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리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단단하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의 특성을 통해 개인의 상처를 표현한 '상처-목걸이' 프로젝트, 사적인 공간을 유리구슬로 꾸민 '나의 침대' 등이 대표적이다.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주르다 뒀은 작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치유'와 '자연'으로 확장한다. 거울 유리구슬을 꼬아 추상적인 공간을 구성한 '리카의 매듭', 자연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 작품 '바람의 장미' 등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2010년 열린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과의 2인전 이후 6년 만에 국제갤러리에서 여는 개인전이다. 자연의 곡선을 표현한 '파란 거울 매듭(Noeud Bleu Miroir)', 식물에서 모티프를 얻은 '보랏빛 연꽃(Purple Lotus)', 알루미늄을 주조해 단단하고 불투명한 재질로 완성한 '검은 연꽃(Black Lotus)' 등을 전시한다. 특히 '검은 연꽃'을 재해석한 석판화 시리즈 5점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 기획한 작업. 작고 투명한 조각이 품은 거대한 세상을 만날 기회다. 2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문의 735-8449

